



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표창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27일 다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찰관과 은행원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원원에농협 김00계장은 지난 23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현금 다액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을 수상하여 112로 즉시 신고하였으며, 경찰의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후 저금리 대출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지연 등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김진형 경찰서장은 "금융기관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간담회 및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제1회 효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진안군은 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 진안군지회(지회장 조준열)와 27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제1회 효문화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효 문화 학술세미나는 효사랑, 나라사랑, 부모사랑, 스승사랑, 자연사랑을 고취시키고 한국적 효 실천 방안을 찾으며 진안의 특산물인 홍삼과 연계해 효문화를 정립하는 세미나로 지방의 효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한 이유 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열 진안부군수, 김민규 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이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소순갑 (사)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 총재 좌장을 맡고 박희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준열 지회장,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소재호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등이 효문화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효문화를 되돌아보고 효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진안군이 효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보건소, 재가 장애인 가을나들이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8일, 장애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외출이 힘들었던 재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립감 완화와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남원의료원과 연계,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요! 재가 장애인 특별한 외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광한투원에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또한 관서담 남성재에서 가을햇살 아래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온 몸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기르고 단합하는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외출에는 재가 장애인, 보호자 등 집중 완료자 60여명이 참석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하게 되며, 관람은 장애인, 보호자 등을 5개팀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입장하여 관람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군산 주민단체 간 원도심 활성화 협력

정읍시 도시재생 해설사·연지 라이브스튜디오·군산 스토리메이커,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 도시재생 해설사와 연지 라이브스튜디오, 군산 스토리메이커는 지난 24일 정읍 청년창업캐릭터에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시재생 해설사 이진영 대표와 연지 라이브스튜디오 이성화 대표, 군산 스토리메이커 유선주 대표를 비롯해 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 단체는 상호협력을 통해 단체 간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발전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각 지역의 숨겨진 곳을 발굴해 알리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해 군산 스토리메이커는 이날 정읍 도시재생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된 '떡 어울림 플랫폼'을 방문·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찹쌀떡 제조 체험과 시식,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떡 산업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살펴봤다.



스토리메이커 유선주 대표는 "두 도시 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준 정읍 도시재생 해설사와 연지 라이브스튜디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해설사 이진영 대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세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읍과 군산 두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임실경찰서, 사선문화제 교통관리 안전 호평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에서는 관촌 사선대 일원에서 3일간 열린 관촌 사선문화제 기간동안 교통관리(자치경찰사무) 안전의 결과로 원활한 소통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3년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행사로 다수의 관광객 방문 및 행사장 주변 차량 정체 예상되어 사전 노선 점검을 통해 우회로 확보 및 임시주차장 5개소를 운영했다.

특히, 사전에 면밀한 교통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축제장 출입 주도도로인 천변로를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여 교통경찰과 자율방범대 역할을 집중시켜 예전보다 더욱 원활한 소통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축제기간 3일동안 행사장 주변에서 단 한 건의 교통불편 신고나 교통사고가 없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만경읍 토정마을 한마음 잔치 행사 열려

김제시 만경읍 토정마을(이장 유성근)은 지난 26일 토정마을 만경1경(만경초전망대)에서 토정마을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인권 도의원, 유진우 시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마을 주민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마을잔치가 3년 만에 열렸으며 마을에 활력을 주고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며 약 100인분의 뷔페 음식 등 일주일 전부터 행사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근 토정마을 이장은 "풍성한 가을을 맞아 탁 트인 자연에서 토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기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시 만경읍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장님 및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웃음과 건강이 더욱 함께하는 토정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장들은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 및 주변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김제시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들과 다양한 전입 지원 혜택이 담긴 리플릿을 전달하며 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활면 이장협의회, 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캠페인

김제시 광활면(면장 최연주) 이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장들은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 및 주변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김제시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들과 다양한 전입 지원 혜택이 담긴 리플릿을 전달하며 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경찰서,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 가저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이 지난 26일 각 과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무주서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는 절도 피의자 검거유공으로 경사 박상호 등 2명, 율지연습 및 반딧불축제 교통관리 유공으로 경위 양승조 등 6명을 표창을 수여했다.

유봉현 서장은 대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왕정동,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남원시 왕정동은 지난 26일 동절기 저소득 35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침구류(이불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대책의 일환으로, 대상가구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통장,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등 민간복지인적자원을 활용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며 주민주도 지역복지 모범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불을 전달받은 독거노인은 "예년보다 날씨가 추울 것이라 하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 동절기 난방 걱정이 많았는데 따뜻한 이불을 전달받아 매우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사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순천지사 256-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66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6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6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책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